

## 2020 충남도정에 바란다③ : 청년 일자리편

김양중 · 송영현 · 정희민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연구원  
kyj0509@cni.re.kr/pm1032@cni.re.kr/hoimin@cni.re.kr

기획연재로 발간되는 「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는 충남의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2020년 도정 희망을 조사한 기획리포트임. 본 편은 충청남도 주요대학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업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임.

### CONTENTS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3. 도내 청년 의견조사 결과
4.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

### 요약

- ◀ 세계시장 불황,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시장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충남도 청년 일자리의 경우 전국 대비 고용률, 실업률이 나빠진 것은 편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
  - 상기 배경에서 도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도내 청년들의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함
- ◀ 충남도는 구직, 채용, 인프라, 근속 등 일자리 관련 제(諸)분야를 다루는 중앙에 비해 일자리 대책이 단편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특화 대책, 코로나 관련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임
- ◀ 한편, 충남도 내 주요대학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현황, 청년취업 미스매칭, 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함
  - 도내 청년들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코로나19가 이러한 상황에 주 이유 중 하나라고 응답함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조건과 현실에 미스매칭도 큰 편이며, 지원사업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임
- ◀ 앞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및 인프라, 청년 일자리 교육 및 홍보 등 3개의 정책방향과 이에 수반되는 9개 전략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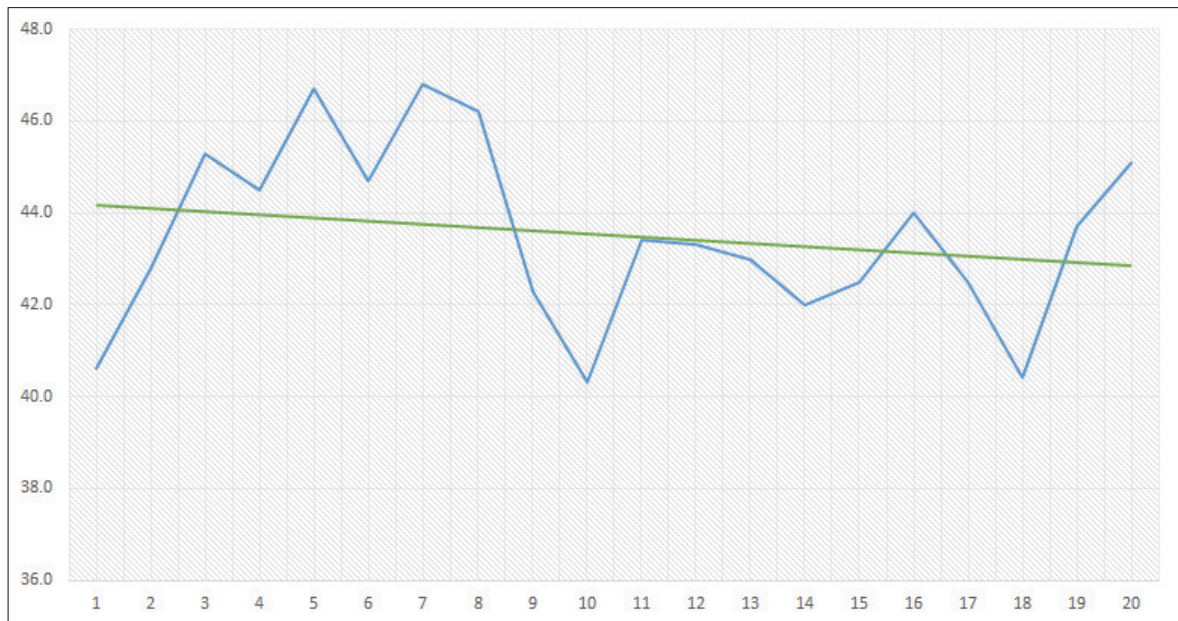
# 01

##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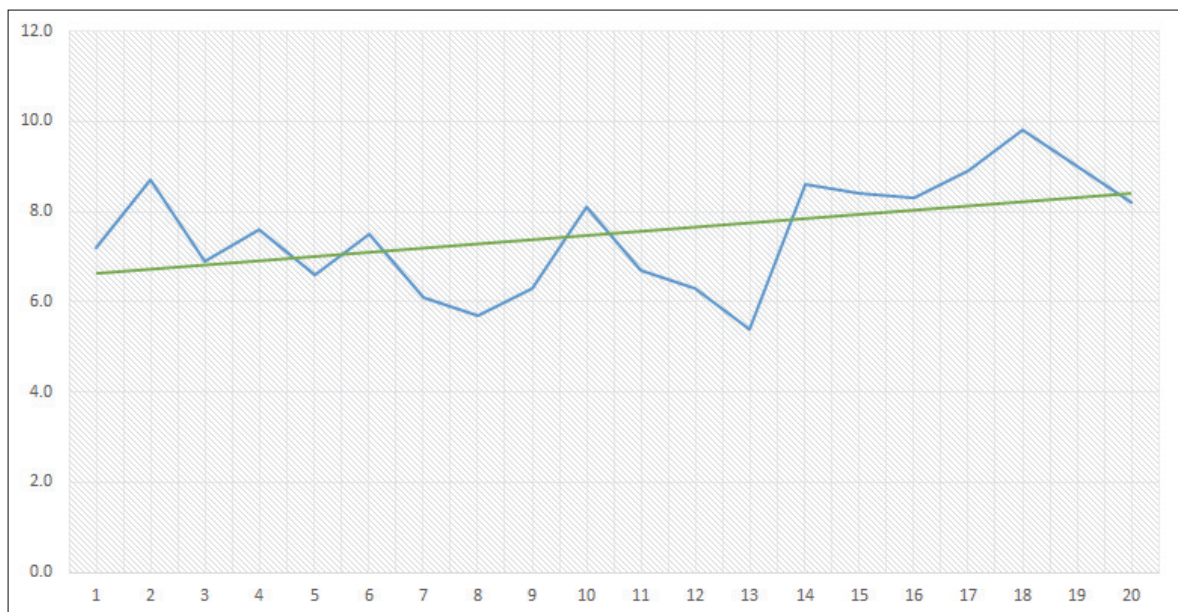
### 1. 연구배경

- 청년들은 세계시장 불황,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현재의 고용시장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통계청 발표보다 체감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이처럼 심리적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우려가 지속된다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음
  -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 청년부채의 증가 등 사회적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문제방지를 위해 청년들의 빠른 사회진출을 도모해야 함
-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도 세계경제불황, 경기둔화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여기고 있어, 불안감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어,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지자체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가 좋은 편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존재함
  - 충남도는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크게 발달되었고 이들 분야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해당부문 일자리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충남에 취업하는 충남소재 대학졸업자는 16.7%에 불과하며, 도내 대학 출신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
  -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에 비해 특히 낮음

- 사회적경제일자리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사회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해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음



[그림 1] 충남의 청년 고용률 추이(단위: %)



[그림 2] 청년 실업률 추이(단위: %)

- 즉, 대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볼 때,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충남 청년 일자리 실태 및 관련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함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내용을 파악함
  - 충남의 청년 일자리 실태,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등에 나타난 청년 일자리 대책 과 문제점을 진단함
  - 도내 청년들의 노동시장 현황,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지원사업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
  -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및 인프라, 청년 일자리 교육 및 홍보 3가지의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9 개의 추진전략을 제안함

## 1.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현황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2017년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구직, 채용, 근속, 인프라 4개 분야에 대한 것으로 요약됨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의 한시적 상향조정, 청년층 장기근속, 청년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 목소리 수렴·홍보 등이 주요 내용임
  - 위와 같은 기초아래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162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임
- 한편,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정책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으로 나뉘 대상자별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정책 실시 중임
-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라는 슬로건 하에 6가지 분야의 청년 대상 정책을 실시 중임
  - ①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②정보제공, ③진로탐색, ④직무능력 키우기, ⑤일경험 기회, ⑥해외 취업 등 6가지 방면의 청년 대상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분야별로 1-3개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음

〈표 1〉 청년 일자리 정책현황(고용노동부)

| 분야                      | 시책                  | 내용   |
|-------------------------|---------------------|--|
| 장기근속<br>및<br>자산형성<br>지원 | 청년 추가고용<br>장려금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li> <li>-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li> </ul>  |
|                         | 청년내일채움<br>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li> <li>- 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li> </ul>   |
|                         | 청년구직활동<br>지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li> <li>- 대상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li> </ul>   |
| 정보제공                    | 온라인 청년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상담을 제공하는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li> <li>※ 162개 중앙, 3,561개 지자체 청년정책과 216개 청년공간 정보 종합 제공 중(2019. 12월말 기준)</li> </ul>   |
|                         | 오프라인 청년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li> <li>- 대상 :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불문)</li> </ul>  |
|                         | 청년친화강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임금체불, 산재사망 등 7가지 결격요건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임금수준, 일가정양립, 고용안정성 등 청년 친화적인 요건을 반영하여 선정할 알짜 중소기업 정보 제공</li> </ul>  |
| 진로탐색                    | 대학일자리센터<br>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li> </ul>   |
| 직무능력<br>키우기             | 청년취업아카데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생(원) 졸업(예정)자에게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 창출</li> <li>- 대상 : 참여과정 분야의 전공 및 전공수준의 졸업(예정)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등</li> </ul>   |
|                         | 일학습 병행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li> <li>- 대상 :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li> </ul>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직업능력 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관리·지원</li> <li>-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 신청가능</li> </ul> |
| 일경험<br>기회               | 중소기업탐방<br>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 유도</li> <li>- 대상 :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1만명, 유·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li> </ul>                                      |
| 해외취업                    | 해외취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li> <li>- 대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li> </ul>  |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lel.go.kr)

- 한편, 2020년 1월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KDI(2020)는 서비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 고용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2, 3월 고용률이 1월 대비 0.9%p, 2.6%p 하락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감하면서 해당 업종과 관련이 깊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경색되었다 판단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수출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책 마련, 무역 피해기업 금융지원, 민관합동 피해 수출기업 밀착지원 등 시책을 도출하고 추진 예정임
-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약 5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2. 충남 청년 일자리 실태 및 정책현황

- 충남의 2018년 지역내총생산은 약 112.8조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6.2% 차지하고 있고 충남의 총생산규모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이나 고용률은 4위를 기록함
- 201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충남 청년의 고용 현주소를 살펴보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국의 평균적인 상황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임
  - 2012~7년 동안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이 충남 청년 고용률을 상회하였으나, 2018년 역전되었으며, 2019년 역시 충남의 청년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남
  - 2012~9년 동안 충남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2〉 충남 고용률·실업률 현황(단위 : %)

| 구분        |    | 연도   |      |      |      |      |      |      |      |
|-----------|----|------|------|------|------|------|------|------|------|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청년<br>고용률 | 전국 | 40.3 | 39.5 | 40.5 | 41.2 | 41.7 | 42.1 | 42.7 | 43.5 |
|           | 충남 | 43.0 | 42.0 | 42.5 | 44.0 | 42.5 | 40.4 | 43.7 | 45.1 |
| 청년<br>실업률 | 전국 | 7.5  | 8.0  | 9.0  | 9.1  | 9.8  | 9.8  | 9.5  | 8.9  |
|           | 충남 | 5.4  | 8.6  | 8.4  | 8.3  | 8.9  | 9.8  | 9.0  | 8.2  |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2](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2))

- 그러나 2018년 발표된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양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질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존재함
- 이는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은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도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문제가 심화된다는데 기인함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충남에서 취업한 충남소재 대학 졸업자는 16.7%에 불과하며, 이는 곧 청년들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도내 대학 출신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반증임
  - 또한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편인데 15-29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 특히 낮은 편임
  - 정부, 도내 주요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역시 비슷한 문제에 봉착함
  - 사회적경제 일자리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사회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하여 근로조건, 복지 및 처우, 보상체계 등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음
  - 또한 충남도는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크게 발달되었고 이들 분야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해당부문 일자리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임
  - 제조업 관련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이 선호할 수 있는 형태의 제조업 일자리가 적었다는 것이지 제조업 일자리의 전면적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역시 해결이 시급한 문제임

〈표 3〉 충남 청년 일자리 실태

| 구분               |                        | 내용   |
|------------------|------------------------|--|
| 취업지역<br>(2015년)  |                        | - 충남 내 졸업& 충남 내 취업 : 16.7%(5,671명)<br>- 충남 내 졸업& 충남 외 취업 : 83.3%(28,363명)          |
| 여성               | 경제활동참가율<br>(2017년 하반기) | - 1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 충남(37.7%)/전국(46.9%)<br>- 30-39세 경제활동 참가율 : 충남(65.7%)/전국(61.6%) |
|                  | 고용률<br>(2017년 하반기)     | - 15-29세 고용률 : 충남(34.1%)/전국(43.6%)<br>- 30-39세 고용률 : 충남(59.9%)/전국(64.8%)           |
| 사회적경제<br>(사회적기업) | 청년고용비율<br>(2015년)      | 전체 사회적기업 고용자수 대비 청년 고용자수 : 1.4%  |
|                  | 업종분포<br>(2015년)        | 영농(13.7%), 제조(11.6%), 식품가공(11.0%), 시설관리(11.0%) 등으로 대부분이<br>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형태의 사회서비스업 |

자료 :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2018)

-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충남도는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충남도는 지역 청년의 유출문제 심화, 산업구조로 인한 청년유출 등의 문제를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충남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창업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임
- 관련하여 충남도는 7대 세부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4〉와 같음
  - 지역특성, 업종의 다양성, 지역인재의 역내 유입, 조기취업 등 지역청년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창 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를 마련함

〈표 4〉 충남도 청년 일자리 7대 세부과제

| 세부과제                | 내용   |
|---------------------|--|
|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충남거주 18-39세 미취업 청년 30명</li> <li>- 사업내용 :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화자금,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li> <li>- 제조업 이외에 지식기술서비스 분야, 전자상거래, 4차 산업혁명 대비 유망분야 등 집중지원 예정</li> </ul>   |
| 청년 창업공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창업 프라자 :<br/>(위치·면적)서북구 불당동 1500㎡<br/>(구성)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br/>(기능)청년 창업 허브 역할, 창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토대 마련</li> <li>- 지역마을창고 청년 창업가 육성 :<br/>(위치)도내 각 시·군(2개군 선정)<br/>(방향)활용도가 떨어진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br/>(개소)2019 7월 중</li> </ul>                  |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충남거주 18-39세 미취업 청년</li> <li>- 사업량 : 2018년 1회 추경부터 추진하여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신규사업 도입<br/>※ 2018년 23개 사업(2년 계속사업), 19년 공모신청</li> </ul>  |
| 지역대학 충남인재의 장학금 취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지역대학 출신 인재 30명</li> <li>- 사업내용 : 4차 협력체계(도-한국장학재단-대학-기업) 구축, 현장 실습형 및 채용 전제형의 인턴십 추진, 청년참여자 채용기업 인센티브 지원</li> </ul>  |
| 청년 조기취업 계약학과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도내 1개 대학 공모선정·지원</li> <li>- 사업내용 : 대학교육과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간 미스매치 완화, 취업 후 재교육에 따른 사회비용 해소를 위해 계약학과에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하고 조기취업 지원</li> </ul>  |
| 다양한 직종의 창업여건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li> <li>- 사업내용 : 음악창작소 및 청년공예 창작자 클러스터 운영</li> </ul>  |
| 청년 농어업인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br/>(대상)만18-39세 친환경농업희망자<br/>(내용)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 판로지원</li> <li>-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br/>(규모)연 152명<br/>(내용)농산업 창업교육, 컨설팅,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등</li> <li>-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br/>(규모)연 17명<br/>(내용)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어 기자재 구입 등 비용 지원</li> </ul> |

자료 :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2018)

- 또한 위 종합계획의 기초 하에서 충남도는 2020년 현재 9개 분야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전월세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 중임
  - 약 1,700여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9개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은 약 392억원임

〈표 5〉 2020년 충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

| 구분                         | 사업량(명) | 예산액(백만원) | 추진부서   |
|----------------------------|--------|----------|--------|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 39     | 1,047    | 사회적경제과 |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              | 67     | 1,721    | 사회적경제과 |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16     | 422      | 공동체정책과 |
|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 152    | 3,990    | 청년정책과  |
|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 | 104    | 2,908    | 청년정책과  |
|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20     | 697      | 청년정책과  |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 200    | 4,240    | 청년정책과  |
|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 50     | 900      | 소상공기업과 |
| 시군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1,061  | 23,297   | 청년정책과  |
| 합계                         | 1,709  | 39,222   |        |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2](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2))

- 한편, 충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긴급자금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청년과 관련된 별도의 조치는 아직 시행한 바 없음
  - 2020년 5월 이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하여 일자리 대책, 금융 위기 대응, 신성장 사업 발굴,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할 예정임

### 3. 문제점 진단

- 충남도가 지역특화형, 지역인재 유입형, 다양성 확보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특화수준과 다양성이 높지 않고 지역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도 단편적임
  - 지역이 주도하여 특화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 도내 각 지역별로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 2019년 시군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물론 시군별로 특징을 반영한 사업(ex: 천안 일본수출규제 관련 일자리 사업, 금산 인삼약초분야 일자리 사업 등)도 있으나 상당수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임
  -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국내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다 다루고 있는 정부정책과 달리, 충남은 도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위주로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 충남은 구직, 채용, 근속, 인프라 등 일자리 전반과 관련된 분야가 아닌, 채용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사업이 다수임
  - 정부의 경우 구직, 채용, 근속, 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전반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임
  - 충남의 경우 채용, 인프라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며 구직, 근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소 부족한 현실임
  - 즉,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청년 일자리 대응방안 마련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함
  - 앞서 살펴본 KDI 연구결과와 같이, 코로나19는 청년 일자리에 직격탄을 주었으며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가 많은 타격을 입음
  -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충남의 특성 상, 코로나19 시기에 충남의 청년 일자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제조업 분야가 대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 역시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전략적으로 조응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할 것임

# 03

## 도내 청년 의견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내 주요대학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205명(설문조사 200명, FGI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20년 4월 6일~2020년 4월 17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요대학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의 면접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 실시함
  -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현황, 청년취업 일자리 미스매칭, 지원사업 평가 및 정책희망 사항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 실시함
  -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만족도 및 향후 정책희망방향을 제시함

〈표 6〉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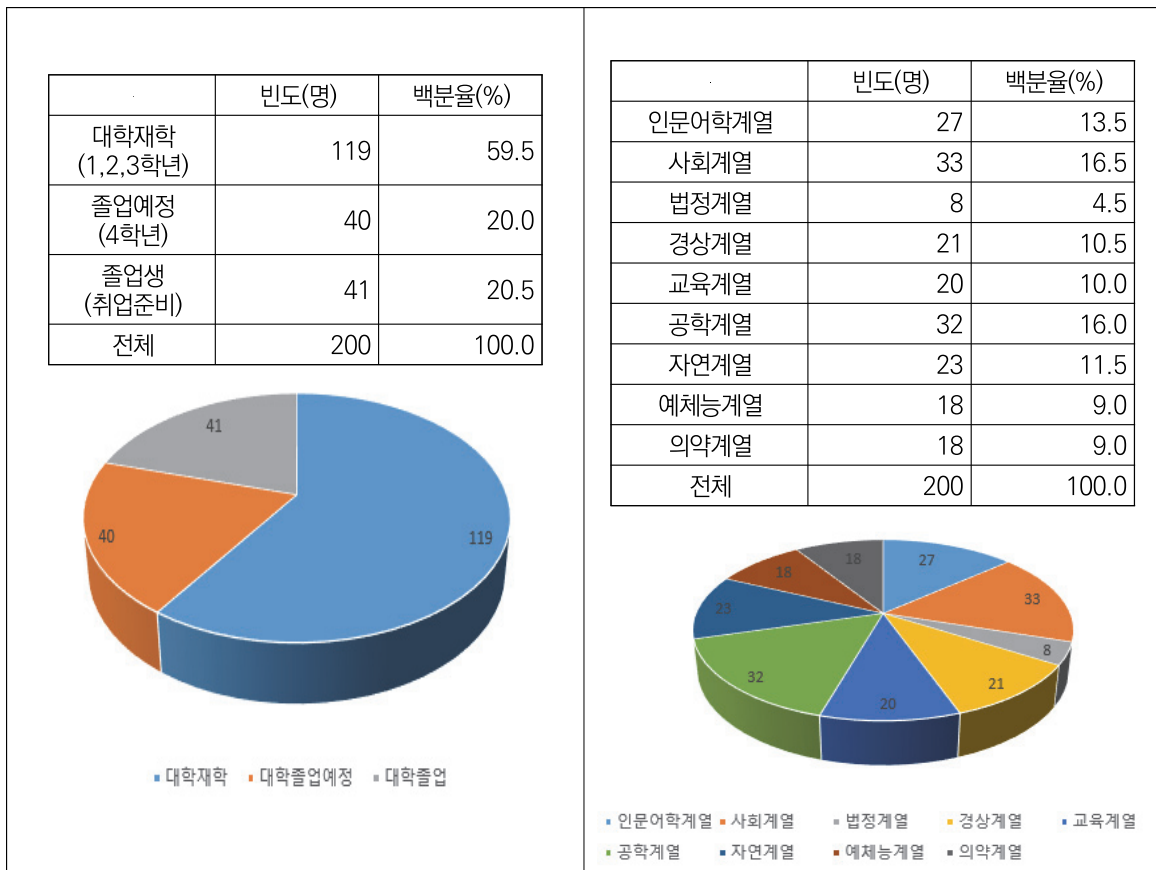
| 구분     | 대학생 실태조사              |
|--------|-----------------------|
| 모집단    | 충남도내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한 대학생 |
| 표본크기   | 200명                  |
| 표본추출방법 | 랜덤 추출                 |

- 한편,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들(5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청년 일자리에 관한 FGI를 실시함
- 2015년을 기준으로 도내 유학생 수는 약 4,400명에 이르나 이들 대부분이 유학 완료 후 자국으로 돌아가며 충남에 남아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함
- 위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내 유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함
- 주요 질의내용은 도내외 노동시장 현황, 유학생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와 개선사항 등임

• 설문 답변자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주요대학 대학재학생(1,2,3학년) 119명, 졸업예정(4학년) 40명, 취업준비생 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대학 별 9개의 전공계열로 나누어 인문어학계열 27명, 사회계열 33명, 법정계열 8명, 경상계열 21명, 교육계열 20명, 공학계열 32명, 자연계열 23명, 예체능계열 18명, 의약계열 18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별 재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함
- 한편, 외국인 유학생 FGI의 경우, 도내 2개 대학 내 중국,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 유학생 4명과 유학생 관리자 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표 7〉 학력정보(좌) 및 전공정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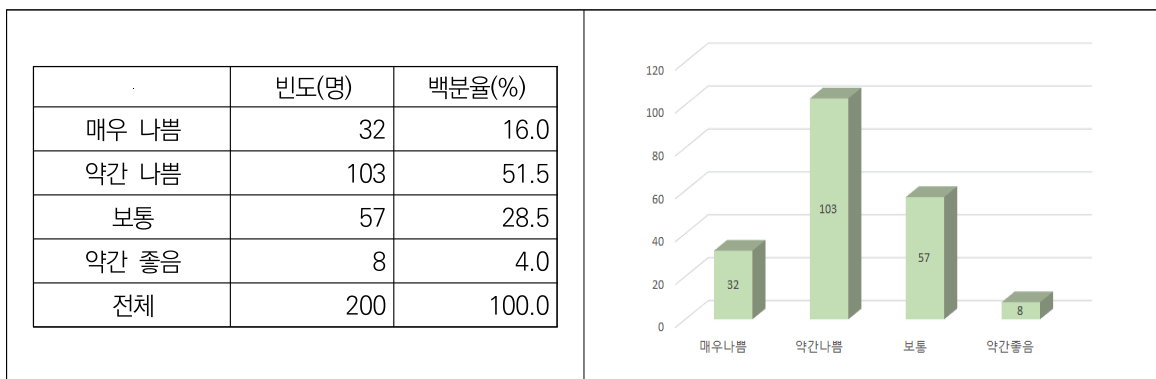


## 2. 분석결과

### 1) 노동시장 현황

- 청년들이 현재 노동(고용)시장에 대해 느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음
  - 청년들이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 느끼는 생각은 부정적인 의견이 135명으로 절반이상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음
  -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 체감도가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인식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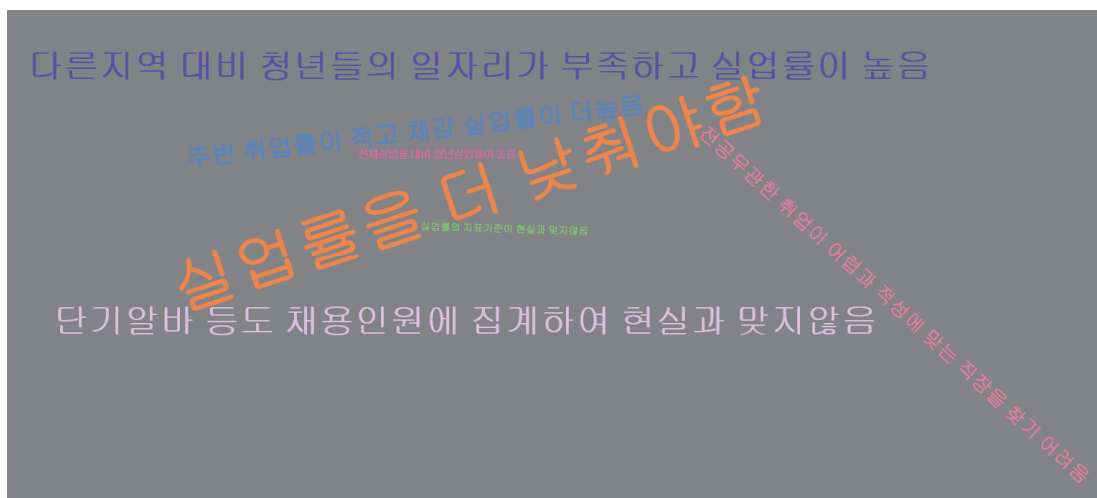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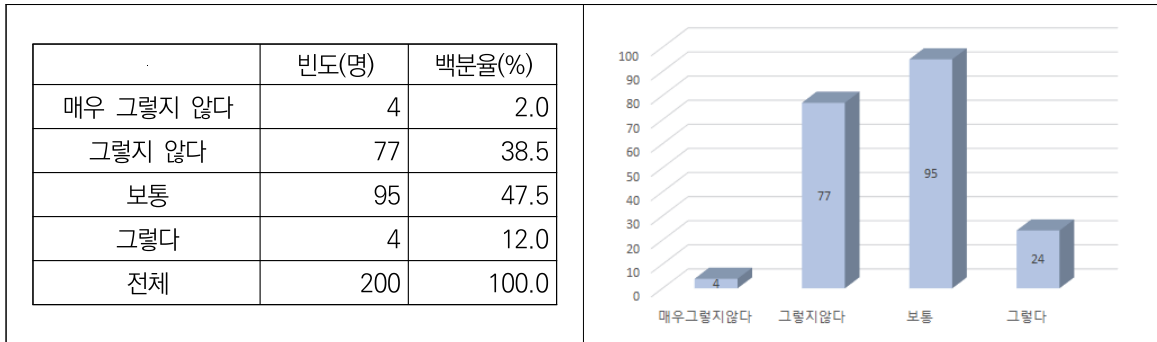
〈표 8〉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도내 외국인 일자리 시장이 매우 경색되어 있으며 특히 전공과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의견임
- 점차 이공계열 유학생이 늘고 있기는 하나 2020년 5월 현재 대부분의 유학생이 문과 계열 학생이며, 이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의 충남지역에 많지 않은 편임
- 2019년 충청남도 청년실업률(8.2%)의 적절성은 다음과 같음
  - 2019년의 충청남도 청년실업률은 8.2%인데 이수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보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반 정도임
  - 충청남도의 청년실업률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실업률을 더 낮춰야한다, 단기알바 등도 채용인원에 집계하여 현실과 맞지 않음, 다른 지역 대비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률이 높음, 주변에 취업률이 적고, 체감 실업률이 더 높다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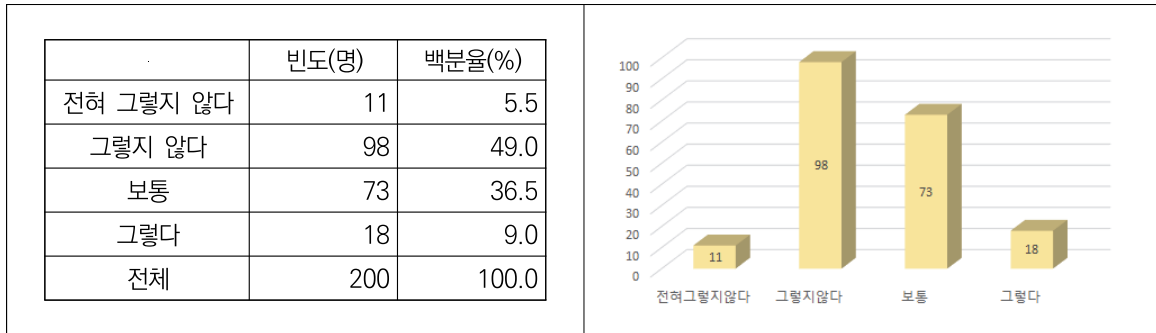
〈표 9〉 2019년 청년실업률에 대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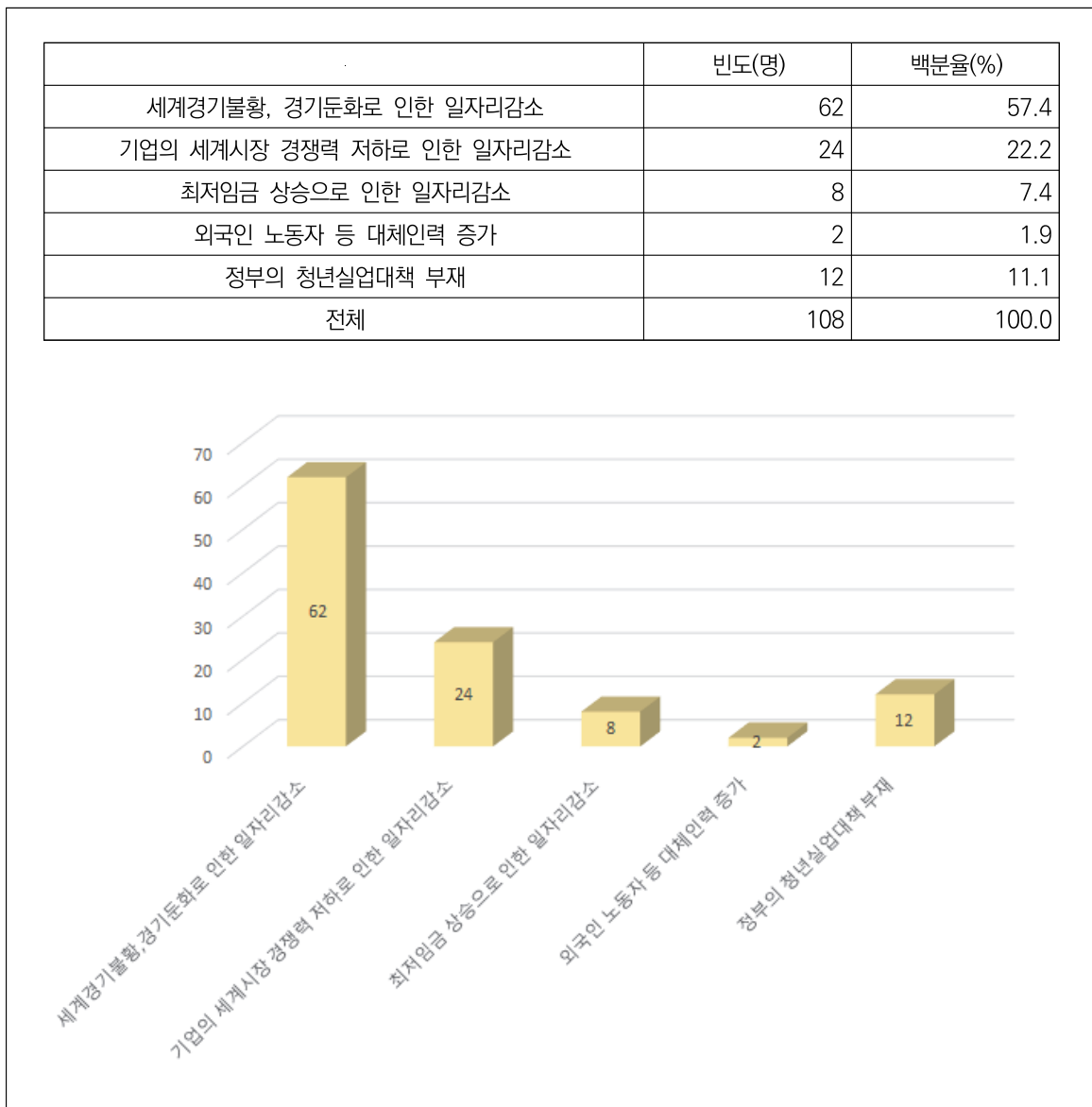
[그림 3] 2019년 청년실업률 적절성에 대한 이유

- 향후 노동(고용)시장의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음
  - 향후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109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그에 대한 이유는 세계경기불황, 경기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저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 순이었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의 부재도 11.1%가 응답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노동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해 향후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충남, 자국의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함

〈표 10〉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예측



〈표 11〉 노동시장이 악화된 이유



〈표 12〉 학력별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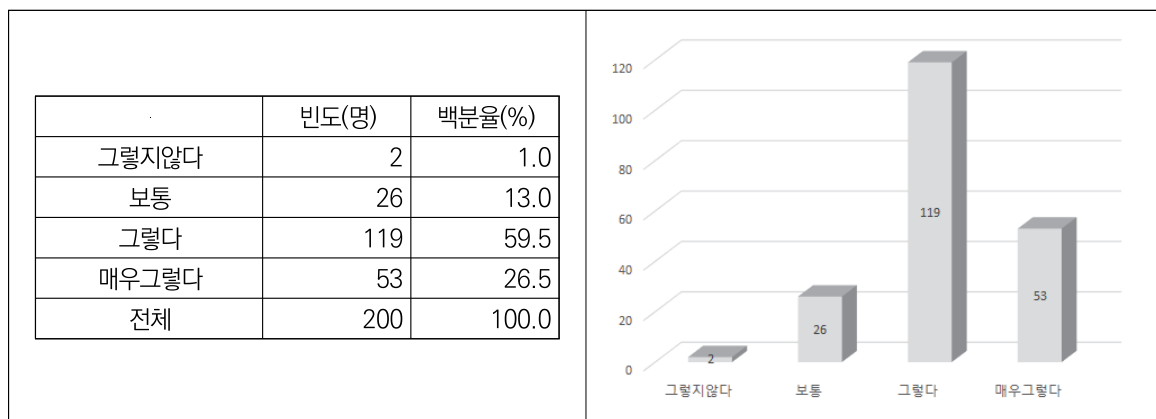
|    |      |         | 향후 노동시장 나아질 것인지 |        |      |      | 전체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학력 | 대학재학 | 빈도(명)   | 2               | 56     | 46   | 15   | 119   |
|    |      | 기대빈도(명) | 6.5             | 58.3   | 43.4 | 10.7 | 119.0 |
|    | 졸업예정 | 빈도(명)   | 5               | 21     | 12   | 2    | 40    |
|    |      | 기대빈도(명) | 2.2             | 19.6   | 14.6 | 3.6  | 40.0  |
|    | 졸업   | 빈도(명)   | 4               | 21     | 15   | 1    | 41    |
|    |      | 기대빈도(명) | 2.3             | 20.1   | 15.0 | 3.7  | 41.0  |
| 전체 |      | 빈도(명)   | 11              | 98     | 73   | 18   | 200   |
|    |      | 기대빈도(명) | 11.0            | 98.0   | 73.0 | 18.0 | 200.0 |

\*0.038(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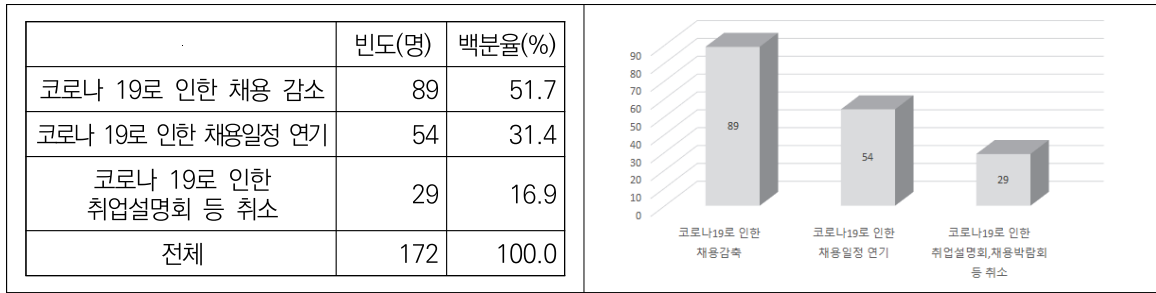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생각 및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시장에 대해 악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6%이며, 고용시장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 밖에 되지 않음
-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부분 고용시장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함
- 고용시장이 악화된 이유는 채용감소가 가장 크고, 채용일정 연기, 채용설명회 등 개최 연기 순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채용은 감소하고 채용 일정 및 채용설명회 등이 연기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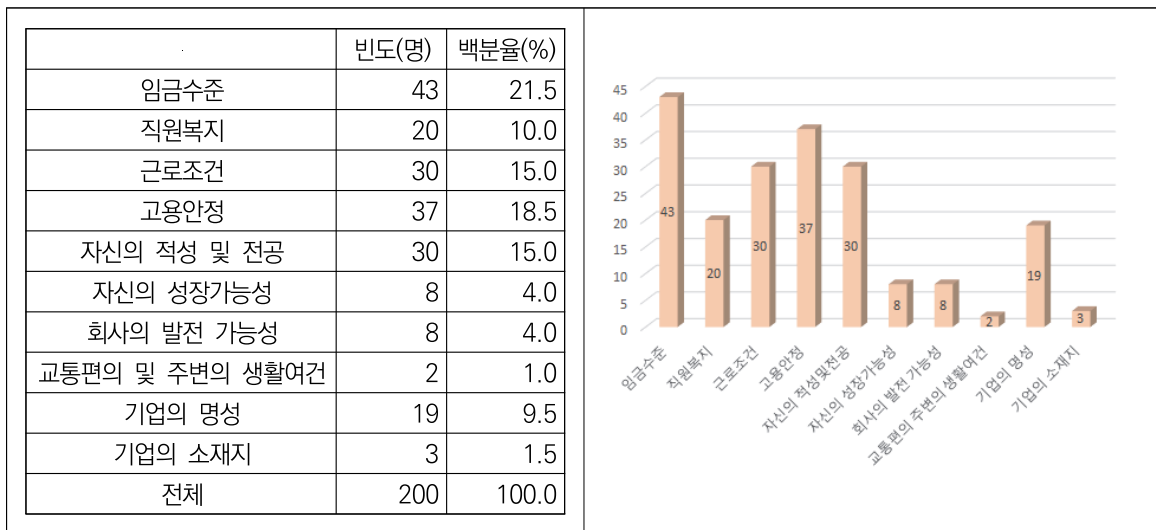
〈표 14〉 코로나 19 관련 고용사정의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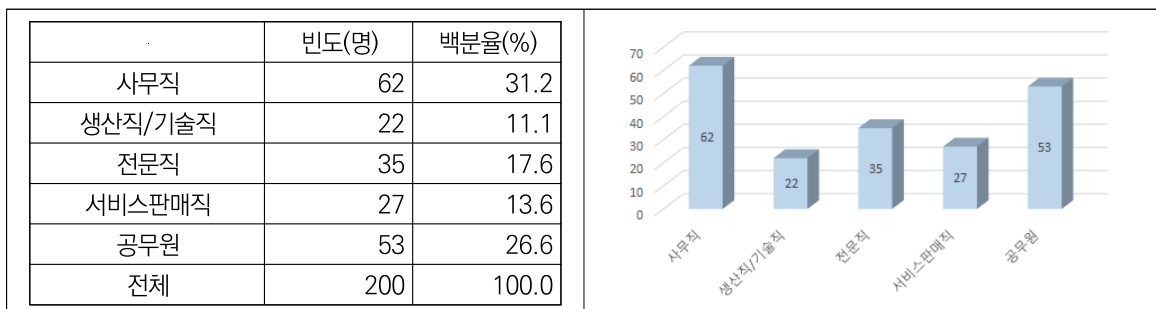
•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과 원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음

- 청년들의 직업선택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임금수준과 고용안정 근로조건, 자신의 적성 및 전공 등의 순이며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수준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갖춘 직장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5〉 직업선택의 고려요인



〈표 16〉 취업을 원하는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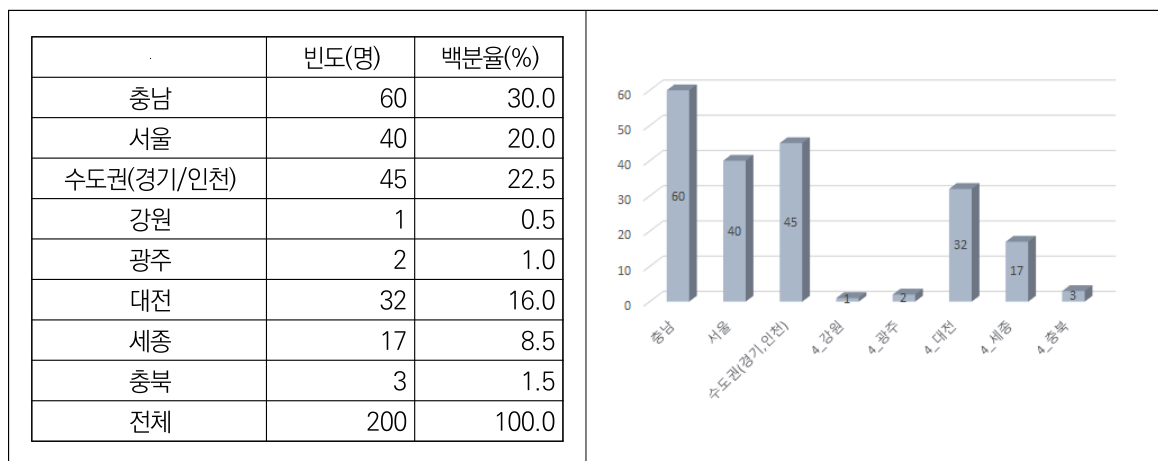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전공적합성을 직업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급여와 생활환경이 그 다음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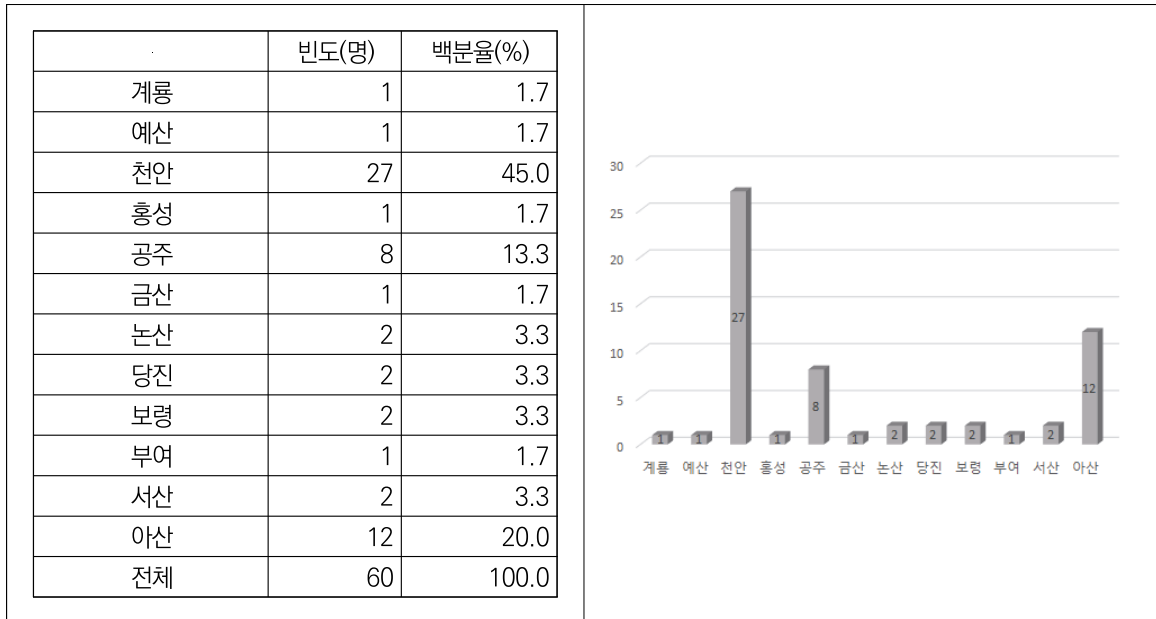
## 2) 청년취업 미스매칭

- 취업을 원하는 지역(충남 및 수도권) 및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취업을 원하는 지역 중 충남을 선택한 비중은 30%이고, 서울, 수도권, 대전, 세종 등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함
  -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아산지역에 취업하고자 하는 비중은 65%로 절반이상 응답하여 충남지역 내에 일자리, 지역적 요건 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서울 및 수도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기존 연고지가 수도권인 경우, 충남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관련된 정보를 모른다 순으로 응답함
  - 취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중 충남의 일자리 부족, 관련 정보의 부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적합성, 급여 등 요인에 있어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관련 정보 역시 수도권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획득할 수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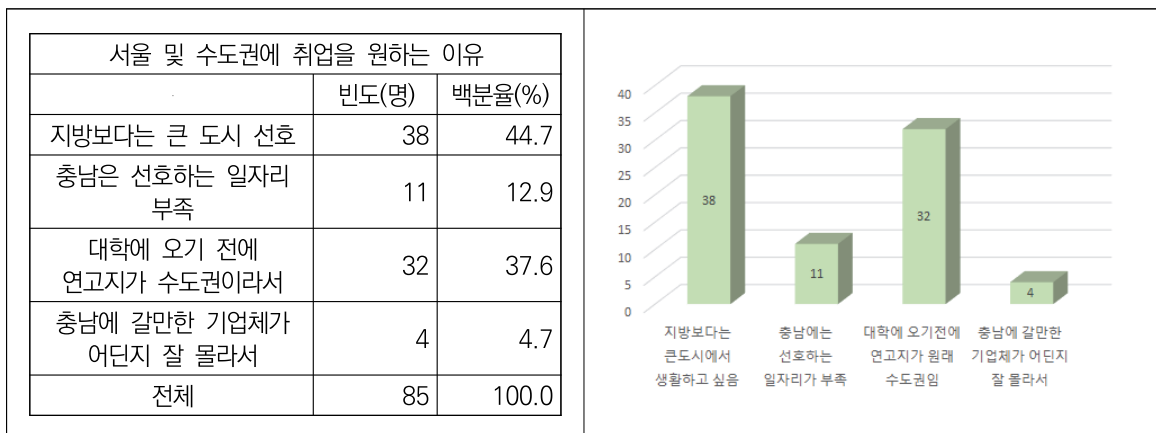
〈표 17〉 취업을 원하는 지역



〈표 18〉 충남지역 내 취업 원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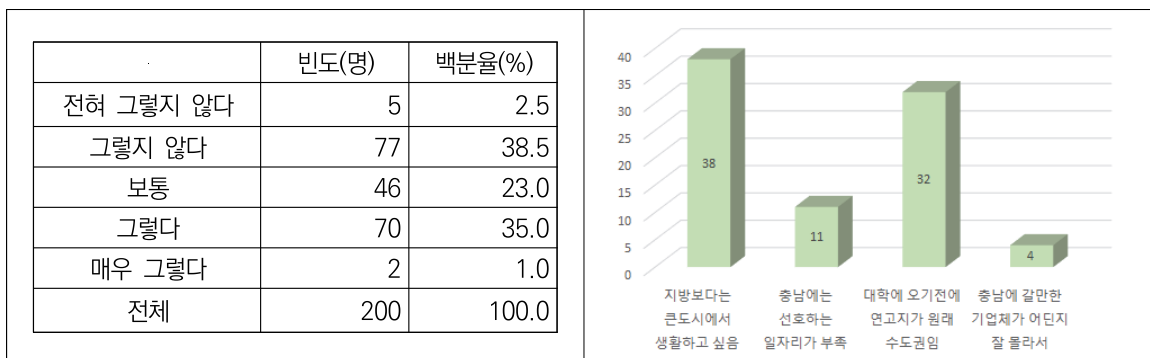
〈표 19〉 서울 및 수도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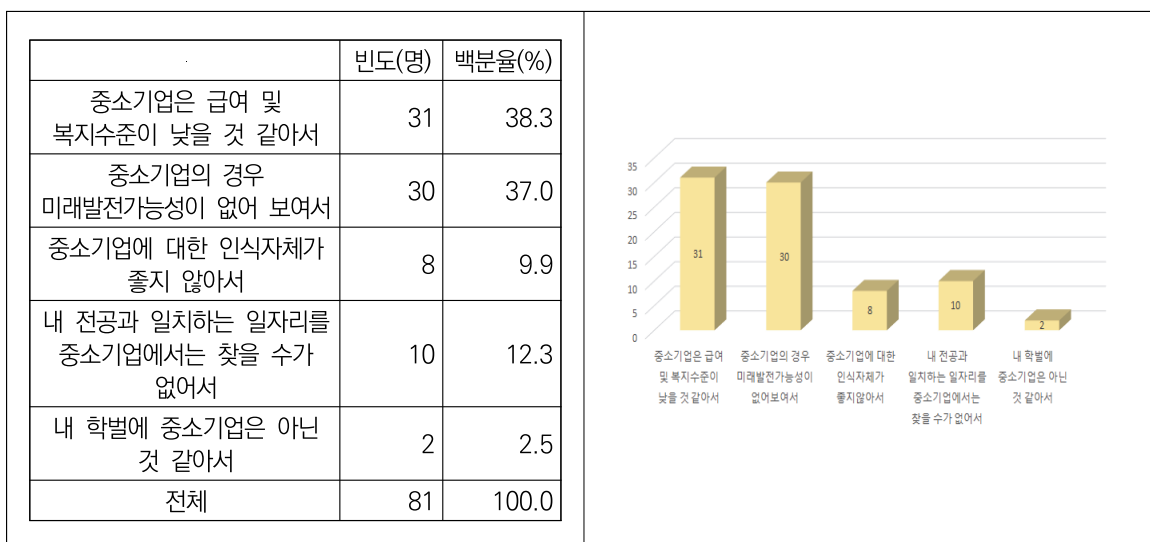
• 중소기업 취업의향 및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이 있는 경우는 72명(36%)으로 취업의향이 없는 경우 82명(41%)보다 낮음
-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급여 및 복지수준이 낮고, 미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61명(75.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표 20〉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향



〈표 21〉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 원하는 초임 연봉 및 중소기업 제시 연봉과의 격차는 다음과 같음

- 원하는 초임연봉의 평균은 3,287만원이고 중소기업에서 제시하는 연봉과의 격차는 평균 588만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고용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함

〈표 22〉 원하는 초임연봉 및 받을 수 있는 연봉과의 격차(단위: 명,만원)

| 구분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원하는 초임연봉                     | 200 | 2,600 | 10,000 | 3,287 | 645.22 |
| 받을 수 있는 연봉과의 격차<br>(중소기업 기준) | 200 | 200   | 7,000  | 588   | 505.28 |

- 남녀, 학력별(대학재학, 대학졸업예정, 대학졸업) 원하는 초임연봉의 평균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정함
  - 남자와 여자, 학력별 원하는 초임연봉의 평균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 독립표본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함
  - 그 결과 남녀와 학력별 원하는 초임연봉 평균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5%하에서 기각할 수 없으므로 남녀와 학력별 원하는 초임연봉의 평균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남자는 3,258만원, 여자는 3,315만원 정도 초임연봉으로 원하고, 대학재학생은(1,2학년) 3,277만원, 대학 졸업예정 학생은 3,370만원, 대학졸업생은 3,237만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임

〈표 23〉 남녀 원하는 초임연봉 검정

| 남자 평균 : 3,257.6<br>여자 평균 : 3,315.8 |         | 등분산 검정 |       | 평균 값 검정 |     |       |        |
|------------------------------------|---------|--------|-------|---------|-----|-------|--------|
|                                    |         | F      | 유의확률  | t       | 자유도 | 유의확률  | 평균차이   |
| 남녀 원하는<br>초임연봉                     | 등분산 가정  | 0.316  | 0.574 | -0.638  | 198 | 0.524 | -58.27 |
|                                    | 등분산 가정X |        |       | -0.640  | 169 | 0.523 | -58.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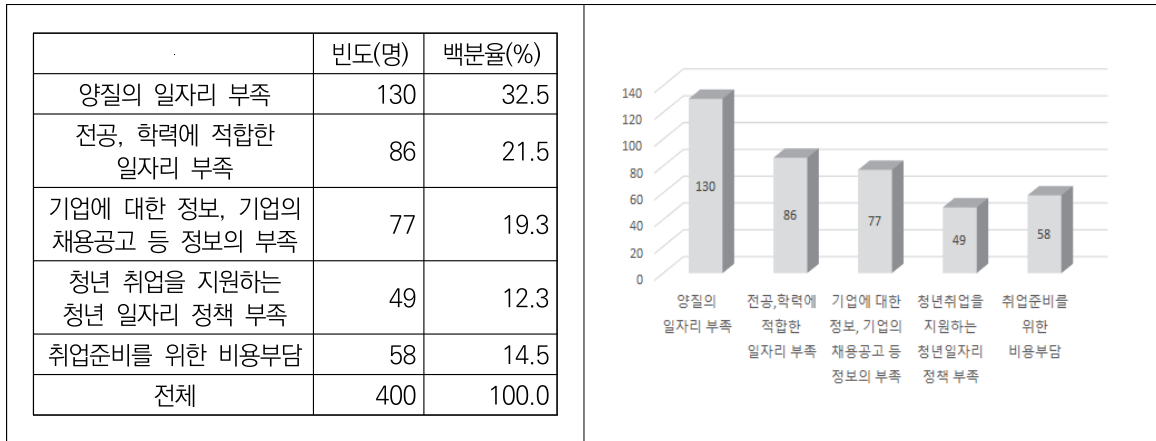
〈표 24〉 학력별 초임연봉 검정

| 대학재학 : 3,276.5<br>졸업예정 : 3,370.0<br>대학졸업 : 3,236.6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집단-간   | 392,960.4    | 2   | 196480.2 | 0.47 | 0.63 |
| 집단-내   | 82,453,239.6 | 197 | 418544.4 |      |      |
| 전체   | 82,846,200   | 19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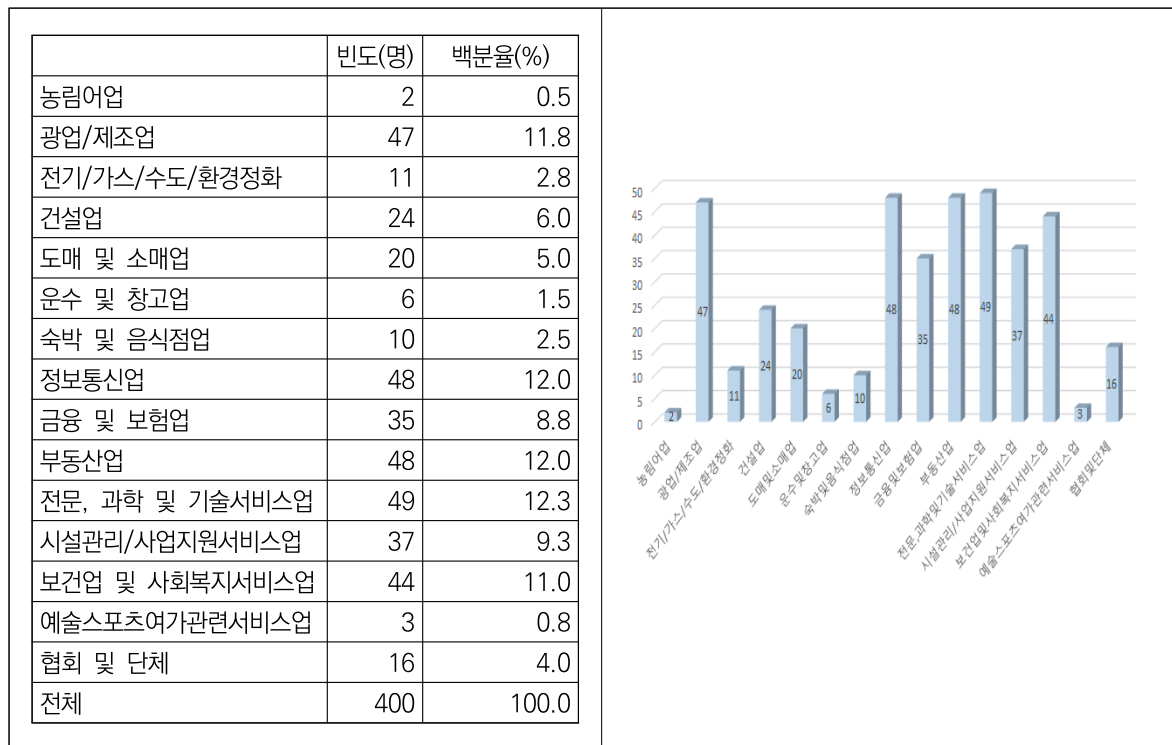
- 구직 시 어려운 점 및 충남의 일자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직 시 양질의 일자리부족, 전공, 학력에 적합한 일자리 부족, 기업에 대한 정보 등 부족, 취업준비 관련 비용부담, 일자리 정책 부족 순으로 어려움이 나타남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광업/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충남에 부족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음



〈표 25〉 구직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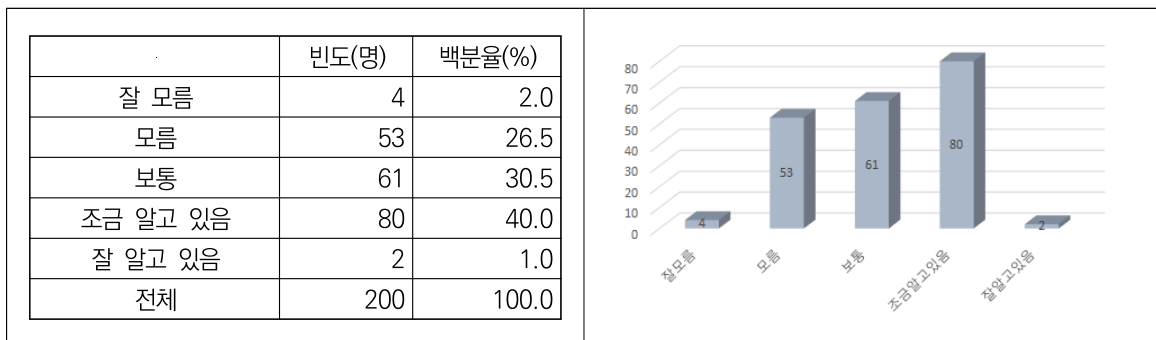
〈표 26〉 충남에 부족한 일자리(업종별)



### 3) 지원사업 평가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아는 정도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비율이 모르는 사람의 비율보다 많음
  - 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는 2.94점으로 보통이하의 수치이므로 만족도를 높일 만한 방안을 모색해야함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내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함
  - 도내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고 이들 중 도내 창, 취업하고자 하는 인원도 상당수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수도권 지자체, 대학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보제공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언급함

〈표 27〉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아는 정도



〈표 28〉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단위: 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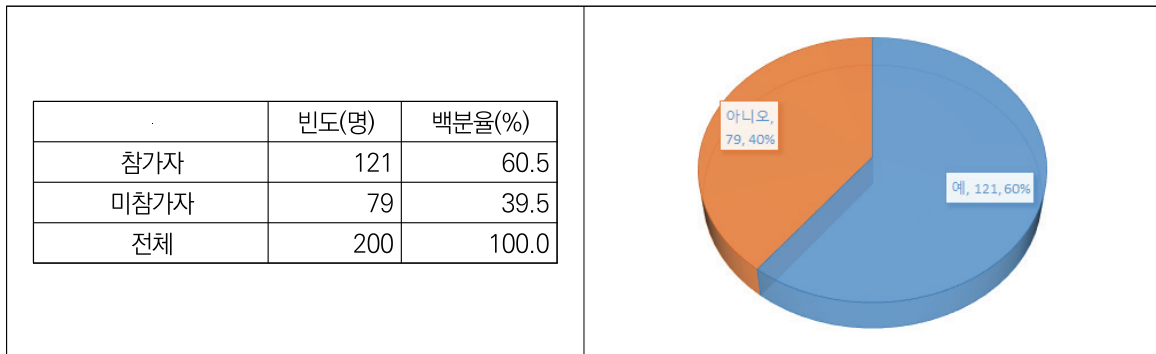
|        |       |        |
|--------|-------|--------|
|        | 빈도(명) | 백분율(%) |
| 매우 불만족 | 3     | 1.5    |
| 불만족    | 40    | 20.0   |
| 보통     | 124   | 62.0   |
| 약간 만족  | 33    | 16.5   |
| 전체     | 200   | 100.0  |

|                |     |     |     |      |          |
|----------------|-----|-----|-----|------|----------|
| 사업<br>평가<br>만족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br>차 |
|                | 200 | 1   | 4   | 2.94 | 0.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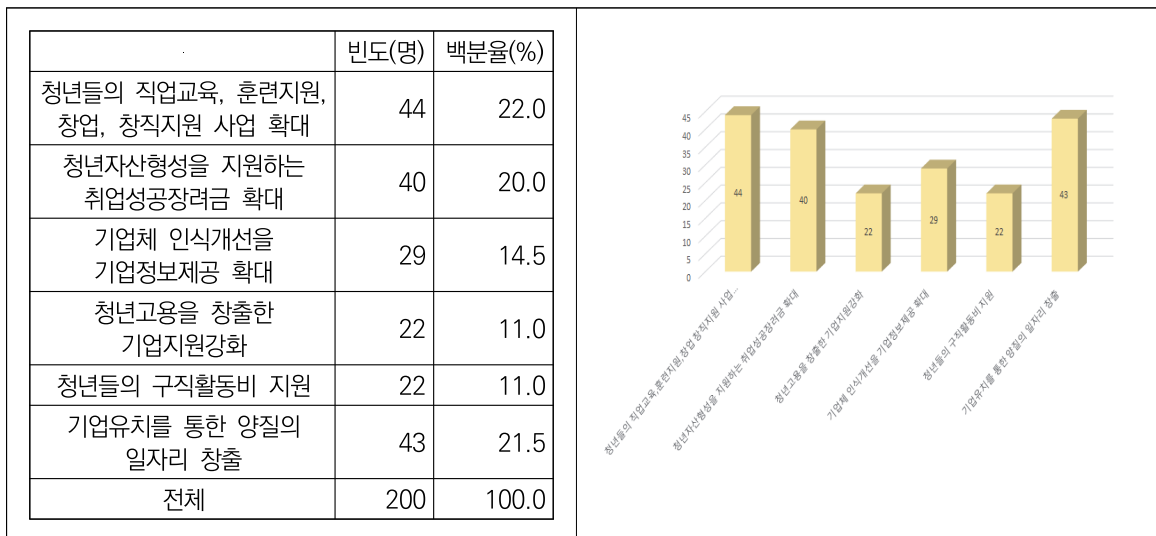
- 충남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직무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121명으로 받지 않은 사람보다 많으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비율도 40%정도 이므로 교육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함
- 청년들의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창직지원사업 확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자산형성지원 등의 순으로 청년지원 추진을 희망함

〈표 29〉 직무교육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



〈표 30〉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



• 충남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기타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며 그 중 충남 내 구직자 관련 취업지원금 확대, 지역 내 공공기관, 대기업 등 우수기업 확대, 충남 및 주변 지역의 구직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청년들도 참여 가능한 취업캠프 실시, 외국인 대상 인턴(실습)활동 실시, 온라인 창취업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04

##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

### 1.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

- 중앙 및 충남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실태분석, 도내 청년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충남의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안함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및 인프라 개선, 청년교육 및 홍보 3가지 정책방향과 9개의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함

### 2. 정책방향별 추진전략

#### 1) 청년 일자리 창출

##### (1)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 설문분석 결과 청년들이 직업선택에서 우선시 하는 것이 임금수준, 고용안정, 근로조건 순이었으며 이들 분야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충남은 제조업중심의 생산직 일자리가 풍부하나 생산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11.1%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공무원이나 사무직, 전문직을 선호함
  -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므로 해당 분야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단순히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선호 일자리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 달리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임
  -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강조함으로써 청년들이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 (2)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창취업 지원

- 4,0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 중, 유학을 마친 후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충남의 경우, 향후 이들이 국제산업협력에 있어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고 도내에서 창·취업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방안 검토

- 서비스업 일자리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충남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바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해 제조업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 역시 이러한 추세변화를 면밀히 관측하고,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약 5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경험사업 등을 6개월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조응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 청년들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및 인프라 구축

### (1)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

- 충남은 현재 수도권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고 실제 수도권으로의 이탈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으로,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지역착근형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기본적으로 큰 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및 여가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임
  - 도내 취업을 원하는 지역으로 천안과 아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고 정주환경 및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여가 및 문화시설 확대도 함께 추진해 가야함

### (2)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의향이 적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함
  - 급여 및 복지수준이 낮고, 미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역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임
-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과 실제 청년들이 받게 되는 임금의 격차가 큰 편으로, 이 문제 역시 현실적인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단기간에 직접적인 임금상승이 쉽지 않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근로복지지원 등 간접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3) 청년들의 구직환경 개선

- 충남의 청년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취업준비 관련 비용부담 등의 구직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충남도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청년들이 접근 가능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청년구직 수당 등 지원책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구직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4) 구직, 채용, 근무, 인프라 등 일자리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기반 마련**

- 현재 충남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채용과 물리적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다수임
- 그러나 채용 이전, 이후 단계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3) 청년 일자리 교육 및 홍보**

#### **(1) 청년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확대**

- 도내 청년들은 직업교육, 훈련지원, 창업 창직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것 외에도 청년들의 역량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함
- 청년들의 선호하는 일자리와 창업분야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관련 교육은 그 다양성을 모두 충족하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함

#### **(2)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 강화**

- 좋은 정책이 있어도 청년들이 알지 못하면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충남의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관심유도와 홍보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2018, 청년고용원정책,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2018,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충청남도

송미영, 2016,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조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제3차 일자리위원회 발표자료

KDI, 2020,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KID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lel.go.kr](http://www.mlel.go.kr))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